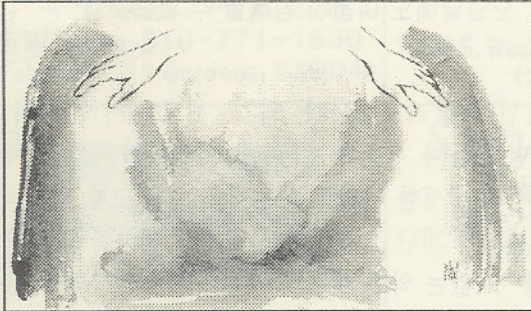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령 강림 대축일(성모성월)
제29권 27호(나해) 2009 · 5 · 31

[묵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

□ 성령송가 □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 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빛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9:00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파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한숙이 모니카, 모광기 요셉, 엄은섭 도로테오 (생)김병록 요셉 가정, 엄혜은 도로테아, 조이, 제니 가정, 김원모 웬델리노와 현숙 체칠리아 가정, 김원호 요셉과 인숙 안젤라 가정, 전충호 안드레아와 자유헌 테레사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고준희 제임스, 이원호 요한, 이금순 마리아, 황옥분, 윤준의 스킨라스티카, 이영자 마리아, 이상현 베드로,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임계순, 장현숙 발바라, 연옥 영혼들, 이성녀, 전규인 스테파노, 조정희 막달레나, 김 수, 이원길 요한, 성순분 수산나 (생)이윤조 글라라, 엄정자 분다, 강찬웅, 민선자, 이재숙 테레사, 이재웅 안드레아와 혜선 안젤라 가정, 이근모 마리아노와 행자 리드비나, 윤영선 에밀리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cts) 2,1-11

화답송 ○주님 당신 열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전례성가 74 성령 강림 대축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크시고 크시어라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많고도 많건마는
온 땅에 당신 조물 가득 차 있나이다.○
○열을 거두시면 그들은 숨겨버려,
드디어 티끌로 돌아가고 마나이다.
보내시는 당신 열에 그들은 창조되어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 기뻐하소서.
이 노래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면
주님 안에서 저는 즐거우리 이다.○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12,3㉔-7.12-13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요한(John) 20,19-23

영성체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17	316
봉헌	262	259,197
성체	Above All	303,302
파견	315	325

5) 교회는 약자의 생명권을 대변할 의무가 있다.

☞“오늘날 연약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수많은 사람, 특히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의 생명에 관한 기본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말, 교회가 당시의 불의에 대하여 침묵할 수 없었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침묵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 5항>

1891년 교황 레오 13세는 회칙 <새로운 사태>에서 그 당시 약자였던 노동자 계층이 기본권을 억압당할 때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신성한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는 태아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한 이들의 인권, 특히 생명의 기본권이 위협당하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그와 똑같은 용기로써 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의무”를 느낀다고 선언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여 현대인의 양심을 비추고 어두워진 시각을 밝혀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 5-6항)

6) 하느님께서는 생명 파괴뿐 아니라 약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도 책임을 물으신다.

☞“하느님께서는 카인에게, ‘네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창세 4,10)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느님의 질문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생명의 복음 10항>

카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카인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라며 시치미 뻑니다.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네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며 무죄한 아벨의 희생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날에도 카인의 태도와 비슷하게 힘없는 이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태만이 생명에 대한 공격을 더 악화 시킵니다.(생명의 복음 8-10항) 카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벌을 받았습니다. 생명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힘없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도 하느님께 꾸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죽일 권한을 지닌 사람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에게 접근했을 때는 실수하지 마라. 그가 너의 생명을 앗아 갈지도 모른다. 너는 지금 올가미들 사이를, 성읍 방벽 위를 걷고 있음을 명심하여라.”(집회서 9,13)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은 스승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렸다. 그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할 강력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였다. 스승의 말씀과 기적의 능력 그리고 그 심오한 해안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상상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스승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살해당하고 만다. 스승은 이러한 사건에 대항조차 하지 못하였다. 제자들의 기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게 되었다. 스승의 가르침과 행적은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이제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생존일 뿐이다. 그래서 더러는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하였다. 어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일단 아무도 자신들을 찾지 못하도록 숨어야 하는 것이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는 최선의 방책이었다. 아무도 눈치 쫓 수 없는 숨겨진 장소에... 누군가가 그들이 숨어 있는 집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수 없도록 모든 문을 꽂고 잠가 놓고서...

스승의 죽음과 함께 삶의 의미를 상실한 제자들에게 이 세상과 이웃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협요소가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장소에 은닉하면서 희망을 상실한 채 폐쇄적이지 비관적으로 머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 어떤 이들에게조차 신뢰를 줄 수 없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못한 채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들끼리 외로이 숨어 지낸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 설사 누군가가 그것을 눈치 채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사는 모습을 드러내는 집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한다. 즉 자신들의 내면으로 들어오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세상과 이웃들로부터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시킨다. 그것이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장소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집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또한 기대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한 곳으로 오리라고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어둡고 폐쇄적인 모든 방어벽을 뚫고 들어와 제자들 가운데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으신다. 예기치 못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발현은 불안에 떨던 제자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준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도록 한다. 단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선사한 것뿐만이 아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몰래 숨고 자신을 철저히 은폐하던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과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 21) 세상에 대하여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신 것이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의 삶이자 생명이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선사하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사 받은 성령은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자 생명이다. 성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원천인 것이다.

◆이규성 토마스신부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문재원 클로틸다	정미영 미카엘라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김금자 데레사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례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하비/카슨 1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6월

◆ 병자 영성체 : 4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성 시간 : 4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 하버/카슨 구역

◆ 성모신심 미사 : 6일(토) 오전 8시30분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5월30일(토) 오후 6시 유아세례식에서 3명의 어린이와 청년 1명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건강한 신신앙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윤석인 에릭 ● 박준형 요셉 ● 박세빈 이베타 ● 김 그레이스

◆ Medicare 및 Madical 의료 정보 세미나

오는 7월1일부터 혜택이 줄어드는 정부 당국의 메디케어 및 메디칼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 일정 : 오늘 주일(31일) 낮미사 후 오후 1시 30분, 강당

● 강사 : 이정훈 안셀모(사회복지분과 위원)

☎(310)329-5014

◆ 최영신 프란치스코 형제의 종신부제 서품을 축하합니다.

● 서품식 : 6월13일(토) 오전 9시

● 주례 : 로저 마호니 추기경

● 장소 : LA 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초대권을 신청하신 분들은 본인 또는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 가십시오. (주차료가 필요합니다.)

*문의 : 최숙 클라라 ☎(310)210-8188 clara@uri-us.com

● 수품기념 감사미사 : 6월14일(주일) 오전 11시, 본당

◆ 제4차 세계 울뜨레아 대회

● 일정 : 8월1일(토) 낮 12시~오후 9시

● 장소 : 애나하임 컨벤션센터

● 티켓예매 : \$25(식사 제공), 한인공동체에 배당된 티켓이 한정되어있습니다.

* 접수 : 정병옥 율리아 ☎404-1607

◆ 빈첸시오회 의류 수집

● 빈첸시오회가 집에서 입지않는 의류를 수집합니다. 모아진 의류는 LA 대교구 빈첸시오회로 보내 남미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손질한 옷이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동참하여 주십시오.

● 수집장소 : 성전 밖 빈첸시오 수거함 아래

● 문의 : 박홍룡 요셉 ☎(310)283-5879

∞ ~~~~~ ∞

청소년 보호위원회 소식

(Safeguard the Children Parish Committee)

◆ 백삼위 본당 청소년 보호위원회 구성

● Chairperson : 송종두 요한

● Member : 신부님, 수녀님, 총회장, 부회장 1명, 총무부장, 청소년분과위원장, 주일학교 교장, 한국학교 교장, 자모회장, 청년회장, 대학부 회장, 주일학교 학생대표, 사무장

◆ LA 대교구 발행 소책자 배포(Working Together To Prevent Child Sexual Abuse)

- 주일학교, 한국학교, 자모회, 사무실에 배포 완료

- 관심있는 신자들을 위해 성당 입구, 사무실에 비치

- 성당 게시판 참조

◆ Finger Print(지문 채취) 실시

- 대상 : 2009/2010 년 주일학교, 한국학교 교사진, 청소년 보호 위원회 위원, 기타 청소년 관련 봉사자

- 일시 : 6월10일 12:00pm - 3:40pm, 5:20 pm - 7:20pm

- 장소 : St. Philomena(21900 Main St. Carson)

사전 예약 필요☎(310)830-6180

◆ VIRTUS 교육

- 대상 : Finger Print 대상자와 동일

- 영어 교육 : www.virtus.org → View a list of sessions 참조

- 한국어 교육 : 추후 공지 예정(6월중)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5월31일(주일) : 토런스 서 3반(비빔밥 \$3)

● 6월7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4)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인모	강태홍	김기석	김상익	김양금
	김우용	김원모	김일선	김재영	박음전	박인식
	박진수	박현주	송호창	엄정자	엄지선	오명섭
	오세원	오수인	유정복	육근주	윤화경	이병우
	이봉덕	이석진	이현주	이효세	임현기	장정진
	전선미	정상문	정해홍	전광락	최길주	최영신
	최인중	한금순	한상현	한창주	호경진	황인중
	합계 : \$4,870					
	미사헌금 : \$2,446.10					

성전헌금	강순복	강태홍	김기석	김양금	김우용	김원모
	김일선	박인식	박진수	송호창	엄정자	오세원
	오수인	유정복	윤화경	이병우	이현주	이효세
	임현기	장정진	정해홍	전광락	최길주	최영신
	최인중	한금순	한상현	한창주	호경진	황인중
	합계 : \$2,280					

주일학교 소식

◆ 첫영성체

- 학생고해성사, 리허설, 학부모 피정 : 6월6일(토)
오전 9시30분~오후1시30분(점심제공)
- 첫영성체 예식 : 6월7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중
-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세례증명서 첨부)

◆ 여름 성경학교 신청

- 일시 : 6월26일(금) 오후 3시~27일(토) 오후 5시
백삼위 본당에서 1박2일(Overnight)
- 대상 : 2학년~7학년
- 준비물 : 침낭, 세면도구, 여벌옷 * 참가비 : \$10
-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 Youth Conference(고등부 신앙대회)

- 일시 : 7월24일(금) 낮 12시 출발~
7월26일(주일) 오후 3시 도착
- 장소 : Steubenvill,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참가비 : \$150(5월31일까지), \$175(6월1일 이후)
-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남가주 소식

◆ 제22차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 일시 : 6월4일(목)~6월7일(주일)
- 장소 : 예수고난회 피정센터 *강사 : 배광하 치리아꼬 신부
- 참가비 : \$270(1인1실 선착순 60명)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 회장

◆ 유빌라테 제3회 정기 연주회 '성음악 미사'

- 일시 : 6월19일(금) 오후 7시
- 장소 : 성 빈센트 성당(621 W. Adams Bl. LA, CA 90007)
- 지도신부 : 박상대 마르코 신부
- 문의 : 김경숙 클라라 ☎(909)618-7575

◆ 청년들을 위한 제19차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7월2일(목) 오후 7시~5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 Divine Word Retreat Center(11361 Cypress Av.
Riverside, CA 90010)
- 지도신부 : 선우 진 신부
- 참가대상 : 18세~35세 미혼 및 기혼 청년
- 참가비 : \$180
- 신청 : 이세레나 ☎(562)569-0934
- 주최 : 남가주 성령쇄신 청년 봉사회(KYCR)

이번 주 단체 모임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테레사 328-0847	홍안나 328-5772 6/12(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박선희 소피아 619-4343 6/13(토) 오후 7시
	3	한길선레 스킨라스타카 218-7824	한길선레 스킨라스타카 782-1025 6/20(토)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명렬 라파엘 374-1572 6/28(주일) 오후 1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엄영숙 마리아 373-5662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안혜진 세레나 530-0357 6/10(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켈마 214-2290	강은진 켈마 214-229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권오상 바오로 365-2183 6/12(금)오후 7시, 성당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6/12(금) 오후 7시30분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6/12(금)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정훈모 바오로 791-6779 6/12(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허리타 377-3820 6/12(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만나영 체칠리아 (424)206-2911 6/2(화) 오전 10시

〈사도 바오로의 해 특집: 바오로 서간과 신학사상〉

◇ **바오로 서간 필사 순서** : 테살로니카 1서, 테살로니카 2서, 코린토 1서, 코린토 2서, 갈라티아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로마서, 에페소서, 콜로새서, 티모테오 1서, 티모테오 2서, 티토서

◎ **콜로새서 -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2)** ◎

◇ **구성과 주요 내용** : 콜로새서는 다른 바오로 서간들과 비슷한 구조로 짜여있다. 저자는 먼저 머리말 부분에서 인사와 함께 콜로새 교회와 관련한 감사와 기도를 드린다.(1,1-20) 이 기도에서 중요한 내용이 언급된다. 바로 ‘그리스도 찬가’(1,15-20)인데,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적 핵심을 담고 있다.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분은 당신 십자가를 통해 만물을 화해시키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찬가’는 하나님의 구원사업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으로 기리는 노래이다. 이 찬가는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던 것인데 바울로가 편지를 보내는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일부 부연하고 손질한 다음 서간에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엄한 찬미가는 나자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영원으로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하나님의 강생하신 아들로 계시하고 있다.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당신과 화해시키셨다. 이 찬미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신비도 언급하고 있다. 교회는 적대적인 세력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긴밀하게 결합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자신의 주님이시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있는 백성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 나신 최초의 분이신 예수께서 교회에 미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다. 그리스도 찬미가는 콜로새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편지의 나머지 부분은 이 가르침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것이 신자들의 생활에 갖는 함축적 의미들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콜로새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고 선포하면서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1,21-29) 이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지는 충만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에 속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정령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 축제나 안식일 문제, 또는 거짓 겸손이나 천사 숭배를 즐기는 일, 또 지나친 육신의 고행 등에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2,6-23) 이런 이단적 사상을 경계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삶에 대해 제시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옛 인간을 버리고 새 인간으로 갈아입은 사람으로서 온유와 인내, 용서와 사랑,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3,1-17) 나아가 그리스도인 가정이 지녀야 할 덕목을 말하면서(3,18-25). 기도 생활과 지혜롭고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권고한다.(4,1-6) 저자는 끝인사에서 자신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며, 이 편지를 라오디케이아 교회에 전하여 돌려가면서 읽도록 하라고 부탁한다.(4,7-18)

◇ **콜로새서의 특징과 의미** : 전체 4장에 불과한 비교적 짧은 편지이지만 콜로새서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특징을 지닌 서간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서간은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 곧 그리스도론을 정립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그리스도 찬가’(1,15-20)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됐으며,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한다는 것, 또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있으며,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화해하게 됐다는 것을 천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역을 우주적 차원까지 넓힌 심오한 고백에 이르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고백은 이제 세례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도 새 사람이 될 것을 재촉한다. 새로운 인간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콜로새서의 중요한 특징에 속한다. 그것은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하는 규정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는 것이다.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고 기도에 전념하여 사는 것이다. 이 모든 가르침은 콜로새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오늘과 미래의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이다.

【◆평화신문 / 이창훈 기자】